

1. 말씀

- 1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듯이 맞아 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 2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 4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 5 사람에 따라 어느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입니다.
- 6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가리지 않고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7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 9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 10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 11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알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이 2-3절, 5절, 21절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나요?

→ _____

-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나요?(1절)

→ _____

- 나는 주변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비판 or 수용?

→ _____

- 내가 요즘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내 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_____

- 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 말씀이 당신의 삶(결정, 태도,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 _____

- 9~10절은 율법의 계명들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판단, 무관심, 경쟁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 _____

-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내 말과 행동 중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서로 다른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 함께 밥 먹기, 선입견 없이 대화하기, 판단 대신 격려하기 등)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4:1-12(비판하지 말라)

당시의 로마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에도 믿음의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는 일이 제법 있습니다. 당시 이방 기독교인들은 모든 음식은 선한 것인데 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지 상당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일들이기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쌓고 있고,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은 서로 용납되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됨을 누리며,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늘 잊지 않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6. 기도